

# 그림책연구 체계화한 아동도서이론서

신명호 지음 「그림책의 세계」



아동도서 출판량 세계 3위. 그러나 그 양적 성장이 질적인 성장으로 비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책방에 진열된 어린이책은 종류와 장르의 폭이 좁아졌다. 어린이책 이론서들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있다면 교재 정도이다.

현재 일본 동경대에서 '표상문화' 분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신명호씨가 지은 「그림책의 세계」는,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에 따르면, "국내최초의 체계적·학문적인 어린이 그림책 이론서"이다. 아동도서 이론서의 황무지인 우리나라에서 "연구의 주춧돌"을 놓은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자는 영상매체시대의 그림책의 위상과 그 가능성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그림책이 최초의 복제예술품으로 어린이에게 주어지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오히려 그림책을 대하기 이전부터 많은 영상매체에 접하고 있다는 진

단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림책은 여러 시각매체의 하나로서, 유행과 흥미 위주의 영상매체와 다른 다양한 시각표현과 시각에 의한 의미전달의 매체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같은 전제 아래, 저자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간단한 테마를 글과 그림으로 전달하는 '그림책'이란 매체의 작가-그림책-어린이(독자)라는 세계의 세계가 하나의 원으로 형성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집중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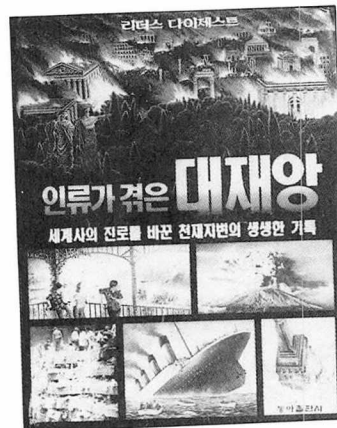
이 책은 시각표현의 변천사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근대적 의미의" 세계최초의 어린이 그림책으로 간주되는 코메니우스(1592~1670)의 「세계의 그림」으로부터 출발, 최초의 대중인쇄물인 미니 사이즈의 Chap Books(그림책의 태동기), 뛰어난 그림과 정교한 인쇄물의 만남인 토이북의 세계, 목판·동판·석판·사진판·금속활자로 이어지는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그림책의 변천, 19세기말 그림책의 황금시대를 연 '예술가'들, 20세기초 그림책 전성기의 거장들, 1930, 40년대 어린이 그림책의 본거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긴 미국의 그림책 작가들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6장 '미래를 향한 그림책의 움직임'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하이테크 그림책·비디오 그림책(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양식의 그림책에 대해 진술한다. 마지막 장은 에즈라 잭 키츠, 토미 양게라, 유리 솔레비츠 등을 다룬 작가론이 모여 있다.

수록된 각종 참고사진을 일람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책의 역사를 일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계몽사 / B5 / 266면 / 15,000원

# 세계사 진로바꾼 천재지변 다큐멘터리

동아출판사 펴냄 「인류가 겪은 대재앙」



역사를 뒤바꾼 '클레오파트라의 코'는 뜻밖에도 많다.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알프스산맥을 넘던 명장 한니발 휘하의 카르타고군은 산사태 때문에 궤멸되다시피했다. 30여년간 연전연승했지만, 결국은 패배했다. 만약 그 산사태가 없었더라면? 16세기초, 아즈텍제국은 스페인에게 힘 한번 못 써보고 멸망했다. 물 건너온 홍역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던 인디안들 150만명이 그 병에 걸리자마자 죽었던 것이다. 총과 대포로 표상되는 '근대'보다 질병이 더 무서운 적이었던 셈이다. 만약 그 '화생방전'이 없었더라면?

지진, 산사태, 폭풍설, 눈사태, 전염병, 홍수 등 자연재해 80여건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 「인류가 겪은 대재앙」은 세계사의 진로를 바꾼 천재지변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불타는 로마, 검은 죽음 페스트가 창궐하는 유럽, 크라카토아 화산의 무시무시한 폭발, 침몰하

는 타이타닉호, 일본을 휩쓴 태풍 베라, 미국 중서부를 휩쓴 회오리바람 등이 현장감 넘치는 글과 화보로써 소개된다. 창세기 시대의 대재앙들, 전세계적 규모의 대참사, 현대까지 계속되는 재난들, 인류의 생존과 자연재해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그 첫번째 이야기는 인류최대의 재난이었던 노아의 대홍수 일화이다. 영국화가가 그린 상상도, 9세기 이탈리아의 부조작품, 길가메시 홍수이야기가 새겨진 서판,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곳으로 지목되는 아라랏산, BC3500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홍수의 흔적이 발견된 메소포타미아의 한 매장지를 담은 사진 등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책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 즉 인간의 사악함은 멸망의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러나 그 재앙으로 인해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다는 전언이다. 이 책은 불가항력의 참혹한 천재지변을 나열하면서도 "생명에 대한 긍정과 희망의 부활에 대한 다짐"으로 감동적인 끝을 맺는다. 참화 속에서 평범한 인간들이 벌이는 비범한 영웅적인 구조, 재앙 속에서도 무사히 태어나는 '기적의 어린이' 등의 극적인 일화 등이 소개되는 것이다.

전세계적 규모의 대참사로 꼽힌 소항목의 제목을 열거하자면 이렇다. 중세유럽의 흑사병, 의문의 발한병, 멕시코의 천연두, 런던의 페스트와 대화재, 생도밍고의 황열병, 여름이 없었던 해, 메뚜기떼의 재해, 중국의 기근, 1888년의 눈보라 등이다.

동아출판사 / A4변형 / 320면 / 30,000원

## 타래

서울 마포구 상수동  
309-3 상수빌딩 201호  
전화 325-1945, 5439  
팩시 325-5439

### 아직도 출판이 문화사업입니까?

어디 <새우깡>이나 <쌀로벌>같은 원고는 없을까?  
우리 사장님 머리속은 날마다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그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잘만 포장하면 노다지를 캐는데 말야...  
포커판에서 배팅을 하는 심정으로  
책을 펴내곤 합니다.  
출판이 문화사업이라니?  
누가 그래?  
어떤 순진한 작가가 그러느냐?  
그렇잖아도 포장된 책의 뒷이야기를  
<너의 날개가 수상하다>  
이 책부터 읽어보십시오.  
창작부터 판매까지  
한국 출판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김승효 장편 소설

너의 날개가 수상하다

신국판 / 306쪽 / 정가 5,5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복하는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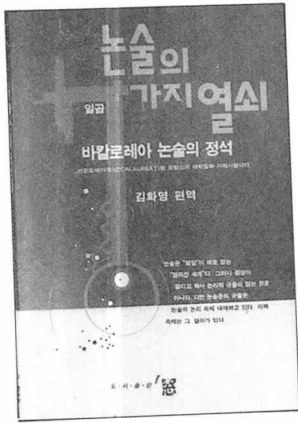
우리글 바로잡기  
실무 (I)

이 책은  
○ 기초단계 → 숙달단계 → 응용단계로 나누어 실습을 통해 교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 각각의 교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 완전 실무 체험 방식으로 꾸몄습니다.

크라운판 / 346쪽 / 정가 8,000원  
교정 실습 및 편집자 교정 교육에 최적입니다.

# 프랑스 논술고사 '바칼로레아' 사례집

김화영 펴냄 「논술의 일곱가지 열쇠」



대입 본고사에 논술과목이 생기면서 글쓰기 붐이 한창이다. 그것은 비단 입시 당사자들인 고등학생뿐 아니라 멀리 국민학생서부터 그 바람에 휘몰리면서 청소년층에 글쓰기 교육이 흡사 돌림병이 돌듯한 형국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붐에 때아닌 호기를 누린 것은 사실확원만이 아니다. 출판에도 엄청난 몫을 본 분야가 있다. 다름아닌 글쓰기 책들과 논술의 요령을 알려주는 책들.

글쓰기는 붐을 이룬대서 갑자기 시험과목이 됐다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과목이 결코 아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 그것은 풍부한 독서량과 많은 사유, 오랫동안의 연마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성급한 독자들에게 의해 그 책들이 수도 없이 팔려나갔지만 정작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별 도움받는 것이 없다”는

실망섞인 말과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예정된 결과였다.

김화영(고려대 불문과) 교수가 최근 펴낸 「논술의 일곱가지 열쇠」는 우리네 글쓰기 교육, 논술시험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추해 보이는 다른 나라(프랑스)의 논술고사 사례집이다. “이렇게 논술에 대비하고 글쓰기의 요령은 이렇다”는 식의 알팍한 출판물들을 몹시 낮부끄럽게 할 타산지석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어느 출판평론가는 “바칼로레아의 일격”이라는 자못 쇼킹한 제목으로 이 책의 출간소식을 알렸던 것일까. 책의 내용은 성인들에게조차도 매우 버거운 정도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시험(바칼로레아), 우리식 교육체제로 대입 예비고사를 치르는 열여덟 열아홉살 학생용 ‘참고서’일 뿐이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도 ‘논술’의 전통이 가장 확고하고 뿌리깊게 자리잡은 나라라는 말을 충분히 실감케 해준다.

“똑바로 이해한 주제에 대하여 1장을 쓰는 것이 빗나간 10장의 글을 쓰는 것보다 낫다”라든가, “1그램의 구체성이 1톤의 일반성보다 더 값진 것이다”는 등의 수험생이 갖춰야 할 기본덕목으로 ‘논리적인 엄격성’을 강조한 점은 우리네 논술관련 책에서도 유사하게 들어봄직한 이야기지만 예문을 통해 그것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는 이 책의 내용은 독자들의 기를 질리게 또는 감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목차는 특별할 것이 없다. ‘논술의 몇가지 기본원칙’ ‘논술의 필수조건’ ‘논술의 도식’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가장 빈번히 출제되는 문제들’ 등이다.

도서출판窓/A5신/256면/5000원

# 날말에 대한 각별한 관찰담은 풍자소설

한뫼 펴냄 「O 빠진 영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물건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던 것이 한순간 사라지고 그것을 이후에는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갑갑증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특히 그 물건이 인간의 입에서 실재없이 나오는 ‘언어’라는 것일 때.

리틀 책과 블랙이라는 해적 두목이 일당을 이끌고 보물을 찾아 우루(Ooroo)라는 섬에도 착륙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임현선씨가 번역했다. 해적들은 평화로운 우루섬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보물을 찾는 한편, 섬 주민들에게 영어 알파벳 ‘O’자를 쓰지 못하게 하는 기상천외한 칙령을 선포한다. 알파벳 ‘O’자가 들어 있는 단어의 사용을 금하고, 그뿐 아니라 피아노나 오보에 등 ‘O’자가 들어 있는 악기도 연주를 금한다. 나중에는 집(House)에서도 살 수가 없게 만들려고 한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가지다. 해적들은 ‘O’자가 들어 있는 음식을 식탁에 올리지 못하게 한다. 알파벳 ‘O’자가 빠졌을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루섬은 알파벳 ‘O’자가 모두 빠져 ‘R’이 되고, 신발(shoe)은 그녀(he)가, 보트(boat)는 박쥐(bat)가, 코트(coat)는 고양이(cat)가 되는 등 기상천외한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헬로우(Hello)!”라는 인사도 물론 금물이다. 여기서 ‘O’자를 빼면 Hell(지옥)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

“O자를 빼고 나니, 우린 총 한 발(shot)이란 말과 총을 쏘다(shoot)라는 말을 구별할 수 없어요.”

섬 주민들은 알파벳 ‘O’자가 들어 있는 말 중 가장 위대한 힘을 지닌 말을 찾아내려고 애쓰다가 희망(hope), 사랑(love), 용기(valor)를 찾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말, 자유(freedom)를 찾아내면서 해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 제임스 터버는 유머와 위트를 지닌 풍자작가로 일곱살 때 화살을 맞아 왼쪽눈의 시력을 잃고 중년기에는 오른쪽 눈의 시력도 잃어 장님이 되었지만, 장님이 된 이후에 더욱 환상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고 한다.

이 책 「O 빠진 영어」에서는 지은이 터버의 날말에 대한 각별한 관찰과 해박한 지식을 만날 수 있는데, 번역문과 함께 책 뒤에 저자의 원본을 그대로 실고 있어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제목과 어울리지 않게 알파벳 ‘O’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될 것이다.

한뫼/A5신/194면/4500원

## 새로운 中國語 世界로의 초대!

中國語 정복의 꿈, 知永社가 도와드립니다

**정통 北京語 정복을 위한 체계적 학습서**

初級中國語教科書1  
₩ 5,500(녹음테이프1개 별매 ₩3,000)

初級中國語教科書2  
₩ 5,500(녹음테이프1개 별매 ₩3,000)

中級中國語教科書  
₩ 5,500(녹음테이프3개 별매 ₩9,000)

**무역중국어의 이론과 실제**

貿易中國語入門  
張靜賢 著 / 梁敬愛 編譯 ₩9,000  
녹음 테이프6개 별매 ₩19,000

**수준 높은 中國語를 위한 실용적 학습서**

時事中國語入門  
白崇乾의 공저/ 편집부 옮김 ₩7,000

高級時事中國語  
崔寬藏 著 (외국어대 교수) ₩7,000

**여행中國語會話**

편안한 중국 여행을 위한 회화책

지영사 편집부/ 값 5,000원

**각종 중국어 시험을 위한 핵심적 학습서**

短期完成 受驗中國語  
金泰哲 著(외국어대 강사) ₩13,500

**중국어 작문의 바이블**

實用中國語作文  
宇仁浩 著(외국어대 교수) ₩7,000

**중국어의 승부는 듣기에서**

初級中國語教科書 聽力練習1  
교재1, 녹음테이프4개 포함 ₩15,000

初級中國語教科書 聽力練習2  
교재1, 녹음테이프4개 포함 ₩15,000

中級中國語教科書 聽力練習  
교재1, 녹음테이프7개 포함 ₩24,000

**HSK單語解說**  
林琬 編著 ₩6,000

**現代中國語文法**  
劉希明 의 공저/ 梁敬愛 編譯 ₩ 8,000

서울특별시 중로구 명륜동4가 109 ● **도서출판 知永社** ● 전화 747-6333/4 ● 팩시 747-6335